

보도시점

즉시

배포

2025.12.30.(화)

## 조달청, 인공지능(AI) 기술 활용 관급자재 선정 우대

- 기술성 평가시 AI 기술 반영 여부를 평가하여 가점 부여
- 납기지연 시 실질적 선정 배제 수준으로 감점 강화... 공기지연 방지

조달청(청장 백승보)은 건설현장의 인공지능(AI)기술 활용을 장려하고, 관급자재 납품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조달청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관급자재 선정 운영기준」을 개정하여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스마트 건설 기술의 핵심인 AI 도입을 촉진하고, 관급자재 납기 지연에 엄정하게 대응하여 공공 공사의 품질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기술개발제품 자체에 AI 기술이 내재된 경우 기술성 평가 항목에서 4점의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특히, 전문성 확보를 위해 인공지능 분야 심사위원이 직접 평가를 수행한다.

선정 방식을 '최고 득점자'로 한정하여, 가격이나 운에 의한 선정이 아닌 기술력이 우수한 제품이 현장에 우선 도입되도록 했다.

또한, 관급자재 납품 지연업체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적기납품 항목의 기본 평점(10점)을 폐지하고, 지체상금부과율에 따른 차등 감점 방식을 도입했다.

이에 따라 지체상금부과율이 4% 이상(납기지체 약 53일 이상) 인 업체는 적기납품 점수가 0점으로 처리되어 관급자재 선정에서 사실상 배제된다.

권혁재 시설사업국장은 “AI 기술 도입은 건설 현장의 안전과 품질을 혁신하는 핵심 동력으로 자리매김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납기 지연 감점 강화를 통해 공기 지연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근본적으로 줄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 개정 기준은 조달청 누리집([www.pps.go.kr](http://www.pps.go.kr)) → 조달업무 → 법령정보 → 훈령에서 찾아볼 수 있다.

### < 참 고 >

▶ 조달청 맞춤형서비스 사업\*의 설계반영제품 관급자재는 다양한 기술개발 제품의 신청을 받은 후 관급자재 선정심의회에서 종합평가\*\*하여 선정

\* 맞춤형서비스 사업 :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건설사업 추진과정(기획·설계관리, 심의대행, 시공관리, 사후관리 등) 전체 또는 일부를 대행하는 전문 건설사업관리 서비스

\*\* 종합평가 : 기술성(40), 경제성(20), 적기납품(20), 경영상태(15), 지역업체(5) 평가

▶ 적격 판정(80점 이상)된 설계반영제품이 다수인 경우에는 추첨, 최고득점자, 최저가격 제품 중 수요기관이 원하는 방식으로 선정

|       |                  |     |                          |
|-------|------------------|-----|--------------------------|
| 담당 부서 | 시설사업국<br>시설사업기획과 | 책임자 | 과 장 이 창 호 (042-724-7415) |
|       |                  | 담당자 | 사무관 류 승 복 (042-724-7418) |